

100만원 얹어주는 '청년13(일+삶) 통장' 인기

160명 모집 1038명 신청

무작위 공개 추첨 선발

맞춤형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3명 중 1명은 빚을 져 여윌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광주지역 젊은이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13(일+삶)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적어 광주시의 예산 확충 등의 대책도 절실하다.

광주시가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13(일+삶) 통장'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 한다'는 의미다.

청년13(일+삶)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통장사업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소액단기 자산형성과 근로·생활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청년13(일+삶)통장 3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60명을 모집하는데 1038명이 신청했다. 청년에게 저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지만 약 6명당 1명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정된 예산도 문제지만 무작정 모든 청년을 지원할 수는 없는 탓이다.

이번 모집에는 지역 내 저임금과 낮은 이직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것

으로 알려졌다.

청년13(일+삶)통장 지원 대상은 4일 페이백을 통한 실시간 중계에서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자를 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1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통장 배부식 및 약정식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청년13(일+삶)통장을 통해 이행기에 있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목표로 한 '광주형 청년보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통장 가입자에게 적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금융·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저축·금융 기본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 자기체험형 지출관리 프로그램(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 손속속 청년정책과장은 "13(일+삶)통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광주시가 지역 청년(만19~34세)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부채 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164명(32.8%)이 빚을 지고 있다. 평균 대출잔액은 2494만원, 대학 재학생(19~24세)은 908만원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전국 16개 시·도 평가

'풍영정천 오염 수사' 우수사례

광주시가 '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발대회는 전국 우수 수사사례를 상호 공유해 수사 인력 역량 강화하기 최근 무주에서 열렸다. <사진>

환경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21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또 발표방식의 최종 심사에서 광주시의 '2017년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 수사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2017년 풍영정천에 화학물질이 다량 유출돼 물고기 수천마리(1180kg)가 폐사된 사건의 증거 확보, 압수·수색, 구속영장 집행 등 난이도 높은 강제수사를 했다. 또 산단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등 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방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제1호 이달의 기업 '피피아이' 선정

전남대 교수와 졸업생들 설립 기업...인텔에 모듈 납품

광주 북구가 지역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의 기업' 선정 사업을 시작했다. 첫 선정 기업은 '주피피아이'가 이름을 올렸다.

북구는 "지난 29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기업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범구민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1호 '이달의 기업'로 피피아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주피피아이는 1999년 전남대 교수와 졸업생이 주축이 돼 회사를 설립하고 최근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기가급 광송수신기용 부품인 디믹스(DEMUX)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

주피피아이 대표이사인 김진봉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최한 '2018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인증패 수여식에 참석한 김진봉 대표는 "북구 제1호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돼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분발해 동종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북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구는 산업단지공단,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고용·세수 증대, 사회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달 중소기업 1개를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패 수여, 모범근로자 표창과 청사 국기 게양대에 회사기 게양, 중소기업 지원 시책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법인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는 기업인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소득·재산 기준 완화...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4인가구 월 41만원 지급

광주시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번 완화 조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준비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신청 탈락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

고, 일반재산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자동차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에서 2000cc 미만 차량 등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다.

지난해 7월 도입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광주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하

나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

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 김오성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최소 381만원 지원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약 10억원을 투입해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 차량은 광주시내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경우 총 중량량이 2.5t 이상인면서 2000년 이후 출시된 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대형차량에 부착하는 PM·NOX 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cc인 경유자동차가 해당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차종에 따라 최소 381만원에서 최대 747만원(자기부담금 10% 별도)까지, PM·NOX 저감장치의

경우 1686만원(자기부담금 59만7000원)을 지원한다. 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7곳)에 직접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부착 예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주시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된다.

지원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 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함께 성능 확인검사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